

NEWS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광주·전남권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 본격화

▶1면 '민주당 대권...'서 계속

또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지역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공지능(AI)을 강조한 가운데 이 전 대표 캠프 측이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에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시범도시'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후보들도 광주를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8일 광주를 찾아 광주 중간·군 공항 통합 이전, AI 특화 산업 지원 등을 약속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월 광주를 찾아 5·18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등 경제 개원을 제시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와 달리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선출기로 함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로 경선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측도 경선 캠프는 간소하게 하고 본선 캠프를 천명계 인사들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양군수 선거전처럼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며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대선 기간에 호남 인사와 공약이 어느 정도 포진되고 관철되느냐에 따라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남을 지, 변방으로 전락될 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면 '민주당 당원'서 계속

국민의힘은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차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경선은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원·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열리는 최종 경선은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2일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최종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5월 3일 열린다.

광주~나주, 화순 등 광역철도 2건·광역도로 5건 추진 중

광주와 전남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내년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 반영을 목표로, 시와 도는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5건 등 광역 교통망 사업 7건을 추진 중이다.

광역철도는 광주~나주, 광주~화순 등이다. 광주 상무역과 전남 나주역을 연결

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25)에 반영됐으며 예비타당성(에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에타가 끝나고 노선 변경(효전역 경우) 등 변수가 없다면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광주~화순 광역철도(광주 소태~화순

전남대병원)는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와 도는 화순전남대병원, 화순생물의약 산업단지 등 백신 의료 인프라 접근성 향상과 광주 동부권과 화순읍 개발에 따른 새로운 광역교통망이 필요하다며 사업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광역도로는 광주 대촌~나주 급전, 광주 하남~장성 삼계 등 2건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반영 추진 중이다.

광주와 전남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대

촌~나주 급전 광역도로는 전남 국지도 49호선에 연결돼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하남~장성 삼계 도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 완공 예정이다.

광주 임곡~장성 황룡 간 도로 개선, 광주 삼도~함평 나산 확장·포장 등 광역도로 사업 2건은 내년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면 설계 등을 거쳐 2028년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 무등산권과 담양 가사문학권을 연결하는 광주 망월~담양 급전 광역도로

개설 공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30년 완공 목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1일 국토부 주최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 간담회에 참석해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사업을 설명하고 광역교통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에 최종 고시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개최 전남도는 지난 11일 무안 초당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약·계승하기 위한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도

파면된 尹, '내란혐의' 오늘 첫 정식 형사재판

비공개 출석...법원, '피고인 尹' 법정 촬영 불허

한남동 관저 퇴거...886일만에 서초동 사저 복귀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선고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규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

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만인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

아간 것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 입주를 완료한 지 886일 만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서초동 사저는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6개월가량 머문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저가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인 탓에 이웃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일단 서초동 사저로 옮긴 후 수도권에 다른 거처를 구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안전광주 만들기' 61일간 대장정 돌입

6월 13일까지 민관 합동 노후·위험시설 495곳 점검

광주시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노후·위험·기반시설 49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121개소는 중앙부처 위임 대상, 나머지 374개소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자체 선정한 시설이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시민도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민관 합동 점검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점검 이후에도 기관장 현장점검과 확인점검을 통해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6월 이후에는 자치구별 평가를 실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안전점검 돌입에 앞서 지난 11일 시청 충무시실에서 '집중안전

점검 최초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등 19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점검 실적을 공유하고, 올해 점검계획 및 기관별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집중안전점검 첫날인 14일 공직자 대상 '집중안전점검 홍보 캠페인'을 시청 1층에서 진행한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율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공직사회 내 안전점검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무안국제공항 폐쇄 3개월 연장...7월 18일까지

개선공사 상황 반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운항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이 3개월 더 폐쇄된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18일까지 무안국제공항의 폐쇄 기간이 연장된다.

당초 오는 18일까지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방위각제공사에 대한 개선공사 상황 등을 보고 공항 운항 재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

각제공사설과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타 공항에 대해서도 개선공사에 착수한다. 해당공항은 무안공항뿐 아니라 제주·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공항 등이 다.

방위각제공사시설을 기체의 활주로 이탈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시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정책, 토목, 환경, 건축, 항행시설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증위원회를 공항별로 구성해 실시단계 용역 산출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사명상장명예회원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